

‘우승 인연’...기분 좋은 추억 안고 ‘어벤즈스 4’ 뜬다



2019 챔프 고진영



2016 챔프 김세영

‘어벤즈스’ 모두가 우승을 경험했던 LPGA 파운더스컵이 8일 개막한다. 사진 왼쪽부터 2019년 마지막 라운드에서 14-16번홀 3연속 버디로 ‘선두 주격’→‘공중 선두’→‘단독 선두’를 차례로 만들어 역전 우승을 일궈낸 고진영, 2016년 LPGA 72홀 최다 언더파 타이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 2015년 노장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김효주, 2018년 대회 우승으로 1년 만에 투어 정상에 오르며 골프 여제 귀환을 알린 박인비. /AP·US TODAY Sport·AFP·연합뉴스 DB



2015 챔프 김효주



2018 챔프 박인비

‘역대 우승자’ 고진영·박인비·김세영·김효주, 내일 개막 LPGA 파운더스컵 출격

‘그린 복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 태극낭자군단 투어 5승 ‘최대 복병’

여자골프 세계랭킹 2·3위 고진영(26)과 박인비(33)가 1타 차 준우승의 아쉬운 기억을 뒤로 하고 좋은 추억이 있는 대회에서 다시 우승 사냥에 나선다.

고진영과 박인비는 8일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과 박인비는 지난 4일 종료된 슐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나란히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쉐린 부티에(프랑스)에게 1타 차로 우승을 내줘 아쉬움을 삼켰다.

파운더스컵은 고진영과 박인비에게 특별한 대회다.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고, 박인비는 2018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는 유독 한국 선수의 우승으로 끝난 적이 많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파운더스컵의 역대 우승자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다.

고진영과 박인비를 앞서 2015년에는 김효주(26)가, 2016년에는 김세영(28)이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고진영, 박인비, 김효주, 김세영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어벤즈스’ 멤버들이다. 어벤즈스는 세계랭킹 4위 김세영, 세계랭킹 10위 김효주까지 세계랭킹 ‘톱10’ 선수들로만 구성된 것이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어벤져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여기에 달콤한 ‘주스’의 의미를 담아 ‘어벤즈스’가 됐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승을 합작했는데, 고진영이 2승, 박인비와 김효주가 1승씩 거뒀다.

파운더스컵을 포함해 4개 대회만 남겨둔 가운데 어벤즈스가 추가 우승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유소연(31), 이정은(25), 허미정(32), 지은희(35), 이미향(28), 이미림(31), 신지은(29), 최윤정(31), 전인지(27), 김아람(26), 강해지(31), 이정은(33), 최나연(34) 등도 출전한다.

솔하임컵 출전 이후 휴식했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 대회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교포 이민지(호주)도 출전한다.

슐라이트 클래식에서 우승한 부티에는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 대회는 IT전문기업 코그니전트가 새 후원사로 나서면서 총상금이 종전 15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2배가 됐다. /연합뉴스



시리아와의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하루 앞둔 6일 손흥민이 파주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손흥민 ‘선발’...시리아戰 ‘필승’

오늘 WC 최종예선 3차전

시리아와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경기를 앞둔 벤투 감독은 경기 이틀 전 입국한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을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6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기용 관련 질문에 “손흥민은 선발로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

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달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이라크와 0-0으로 비기고, 2차전에선 레바논을 1-0으로 꺾어 이란(승점 6)에 이어 A조 2위(승점 4)에 올라 있다.

지난달 안방 2연전에서 연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벤투호는 7일 시리아전 이후 12일 4차전을 이란 테헤란 원정으로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절정의 감각을 뽐내고 있으나 이들이 두 차례 시차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완전한 경기력을 보일지 우려도 나온다.

벤투 감독은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기대만큼 공격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의 경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대표팀 공격진이 부진했다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이번 경기에 어떤 전술로 나서겠다고 얘기하기보단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혹사 상징’ 손흥민, 3년간 300시간 비행·22만km 이동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중책을 맡은 손흥민(29·토트넘)은 다수의 경기 출전에 더해 장거리 이동의 부담까지 떠안고 뛰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5일 44개 리그에서 뛰는 남자 선수 26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업무량 보고서를 내고, 선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한 휴식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수들이 소화한 4만 경기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손흥민이 국가 간 이동 거리가 많은 선수의 예시로 소개됐다.

손흥민은 최근 세 시즌 동안 해외 경기를 위해 22만3천637km를 이동했다. 비행시간만 300시간에 달한다. 반면 손흥민의 토트넘 ‘단짜’인 해리

케인(잉글랜드)은 8만6천267km를 움직였다. 비행시간은 123시간이다.

FIFPRO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열리지만,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아시아와 다른 대륙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손흥민의 대표팀 출전 경기 수는 케인보다 적지만, 이동 거리는 케인의 2.5배에 달한다.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위해 300시간(12.5일 이상)이나 비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준표, 팔꿈치 수술...“재활에 3-4개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투수 박준표(29)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KIA는 6일 “박준표가 5일 오후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뼈조각과 옷자란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경과가 좋다. 2주 후 실땀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재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3-4개월의 재활 및 보강 훈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준표가 순조롭게 재활을 마치면 내년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이드암인 박준표는 2019시즌 5승 2패, 15홀드,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하며 KIA 마운드 필승조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7승 1패, 6세이브, 11홀드, 평균자책점 1.57로 커리어하이로 찍기도 했다. 하지만 큰



KIA 타이거즈 우완 사이드암 투수 박준표. (KIA 타이거즈 제공)

기대를 걸었던 올해 팔꿈치와 허리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박준표는 올해 32경기에 구원 등판해 2승 4패, 4홀드, 평균자책점 5.91의 부진한 성적을 남겼다.

/박희중기자

“너는 최고”...“챙겨줘 고마워”

류현진, 신인 마노아와 유니폼 교환 ‘브로맨스’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발진의 두 기동인 류현진(34)과 알렉스 마노아(23)가 유니폼을 교환하며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

토론토 구단은 6일 구단 공식 트위터에 류현진과 마노아가 유니폼을 교환한 사진을 게시했다.

류현진은 자신의 유니폼에 마노아가 ‘리틀 브로’(작은동생·Little Bro)라고 칭하면서 마노아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다.

또한 류현진은 마노아에게 “너는 최고의 선수야”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마노아 역시 자신의 유니폼에 류현진을 ‘빅 브로’(큰형님·Big Bro)라고 부르면서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더 좋아져서 내년에는 우승 반지를 따내자”는 다짐도 담았다.

마노아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경기에서 9승 2패 평균자책점 3.22의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마노아는 빅리그에 올라온 날부터 류현진을 잘 따랐고, ‘깜짝지’처럼 착 붙어 다녔다.

류현진도 소중한 조언을 건네고 밭도 여러 번 사주



6일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 공식 트위터에 류현진(오른쪽)과 알렉스 마노아가 유니폼을 교환한 사진을 게시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 공식 트위터 캡처>

며 신인 마노아의 메이저리그 적응을 도왔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아쉽게 불발돼 일찍 헤어지게 된 류현진과 마노아는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하며 특별한 정을 나눴다. /연합뉴스